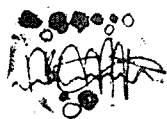


강화군 진료 사업 보고서



그리스도왕 의원

원장 문요안나 수녀

그리스도 왕의원은 1963년 6월에 개원했으며 주목적은 강화군과 김포군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두었습니다.

외래환자 진료소로서 입원실은 없으나 때에따라서 중환자를 입원시켜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강화군은 13개의 면으로서 인구는 108,198명이며 의사가 12명이 됩니다.

본 의원의 총 내원수는 377,230명이며 치유된 환자수는 소아를 포함하여 54,423명이 됩니다. 이중의 10%가 결핵환자 이었습니다.

개원초에는 환자의 60-70%가 무료로 치료하였으며 그의 환자도 아주 저렴한 치료비를 냈을 뿐입니다.

지금은 환자의 30%를 무료로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환자는 유료로 하며 만성병과 가난한 환자는 진료비를 할인해 주며 많은 사람이 후불로 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들중 치료비를 후불치 않는 사람은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1966년부터 우리는 영유아들의 예방접종을 실시 하였으며 보건교육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과 질병의 원인을 방지하는데 힘 써왔으며 이러한 사업을 전 마을을 통하여 왔습니다.

이 기간중에 21,000명의 미취학 아동에게 B. C. G. DDT 소아마비 장티브스 홍역의 예방 접종을 했으며 10,660명은 본 의원에서 10,550명은 마을에서 접종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Vaccine 값만 환자에게 받았읍니다.

이 기간의 보건 교육은 일반 위생을 비롯하여

예방접종 신생아 파상풍 전염병 결핵과 기생충 감염의 예방및 영양과 주택문제에 관해서 역점을 두어 시행하였습니다.

결핵환자의 많은 수가 중증환자 였으므로 본원은 강화 보건소와 공동으로 강화면 국화리를 선정하여 Pilot Project Survey 를 시작 하였읍니다. 강화보건소에서는 15세 이상의 온주민에게 X-선 촬영과 보건 교육을 실시 했으며 본원에서는 15세 이하의 온주민에게는 튜벨크린 반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환자는 전부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는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이같은 사업을 보건소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화면 국화리의 집단검진은 1968년에 시행하였으며 총 333가구의 1,834명의 주민중에서 285가구의 1,395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 결과 222명의 결핵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투약과 검진은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그 40%에서 성공적이었는데 그 원인을 충분한 보건교육의 부족과 대부분의 이 마을 주민들이 하루 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영세민들이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러한 Project는 2년간 계속되었는데 그 비용은 투약과 급료를 포함하여 일백오십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결핵 환자를 위한 특별 성금이 있었으므로 가능했었습니다.

현재 본원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2개의 모자보건 진료소가 있고 여기에 의사 한명과 공중보건 간호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우아와 임신부를 매달 한번씩 방문하여 보

충 식품과 예방접종 진찰등을 영유아를 위하여 와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각종 검사

모자 보건 사업

구 별 지 역	등 록		횃 수		예 방 접 종				비 고
	영유아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	소아마비		추가접종	장티브수	
강화면 관청리(2리)	52	15	208	43	21	20	5	12	1971년선정지역
불은면 삼성리	36	4	192	11	13	17	4	19	"
양산면 철산리	28	2	124	5	21	1	6	13	"
송해면 신당리	37	2	37	2					1972년선정지역 관청리계속관리
계	153	21	566	61	57	38	16	74	

보건 교육 사업

구 별 년 도	개 별 교 육				집 단 교 육				시 범 교 육	
	결핵환자	영유아	임산부	가정방문	파상풍	결 핵	기생충	모자보건	영양시범	복육법
1970 (9월부터)	240	120	12	104				120	8회	3회
1971	444	354	24	207	16회	14회	4회	170	7"	6"
계	984	474	76	311	16	14	4	290	15"	9"

1968년 10월부터 2개년 계획으로 강화면 국화리 총인구 1,834명(333가구)중 132가구 222명의 결핵환자에게 실시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무료결핵 사업에 대한 평가

	응답자수	비율(%)
규칙적인 치료로 완치된 사람	48	22.0
계속 가료를 받는 환자	47	30.1
약 복용이나 주사를 싫어함	52	23.85
생활이 바빠서	38	17.4
투약일을 어김으로 야단맞고 먹지 않음	20	9.1
기타 (주소불명 외출중 이주 사망)	13	6.0

규칙적인 복용후 완치된 사람과 가료중인 사람은 합하여 42.1% 성공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보건교육및 계몽의 부족과 주민의 대다수가 투약보다는 생계유지가 급선무인 영세민에 속하기 때문으로 본다.

1971년 1월에서 7월말까지 진료 및 치료를 중

단한 강화면 관청리 일반 신환자 80명에 대한실태조사 보고중에서 간추린다.

문) 폐결핵은 누구에게 흔히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응답자수	비율
아 기		
누 구 나	5	2.25
못먹는 사람	55	81.25
모 르 겠 다	8	10.0
공기오염지역	1	1.25
유 전 이 다	1	1.25
합 계	80	600.0

대부분 못먹는 사람에게 걸리기 쉽다는 응답자는 81.25% 누구나 걸릴수 있다 6.25% 공기오염지역 유전이다 모르겠다 12.5% 이었으며 아기에 걸릴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문) 폐결핵은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응답자수	비율 (%)
있 다	61	76.25
없 다	14	17.5
모르 겠 다	5	6.25
합 계	80	100

폐결핵을 예방 할 수 응답자는 76.25%이고 23.75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결핵을 예방할 수 없거나 또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 폐결핵은 어떻게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응답자수	비율(%)
맑은공기 마시면	18	22.5
영양섭취	22	27.5
정기진찰 및 예방주사	27	33.75
약을 쓰면 된다	8	10.0
유전이므로 예방할수 없다	3	3.75
모르겠다	2	2.5
합 계	80	100.0

정기 진찰 및 예방주사로서 결핵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33.75%로써 66.25%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결핵의 예방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문) 태의 끝(마지막) 아기는 누가 받았습니까.

	응답자수	비율(%)
의 사	8	10.0
산 파	29	36.25
친 정 어 머 니	11	13.75
시 어 머 니	12	15.0
남 편	3	3.75
혼 자	2	2.5
이 웃(기타)	15	18.75
합 계	80	100.0

※ 분만 개조자에 있어 의사와 산파를 합하여 46.25%이며 무적자에 의한 분만 개조가 전체 응답자의 43.75에 해당한다.

문) 태줄은 무엇으로 잘랐습니까.

	응답자수	비율(%)
바느질 가위	40	93
면 도 날	1	2
소독 가위	2	5
합 계	43	100

무자격에 의한 가정분만 중에서 소독한 가위로 태줄을 자른 예는 5%에 해당한다.

문) 장티브스는 왜(어떻게) 걸린다고 생각 하십니까?

	응답자수	비율(%)
곤충에 물려	5	6.25
환자토물 분변 파티오염	22	27.5
햇볕에 쬐서	3	3.75
모르겠다	50	62.5
합 계	80	100.0

장티브스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모르겠다62.5% 곤충에 물려 6.25% 햇볕에 쬐서 3.75% 정답자는 총 응답자의 27.5%에 해당한다.

문)집안 자녀에게 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아기가 어째서 나오나?

	응답자수	비율(%)
모른다고 한다	11	13.75
배 (배꼽으로)	48	60.0
사왔다고 한다	19	23.75
혼을 낸다	1	1.25
사실 그대로	1	1.25
합 계	80	100

자녀의 성에 대한 질문에서 올바른 대답을 하는 부모는 1.25%에 해당하여 98.75%의 응답자가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